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면서 맡겨진 과제를 제기 일에 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을 고무격려해주시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품진렬실, 가공직장, 조립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성기술문헌에도 없고 남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최첨단약전기계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새 제품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이날 문화회관에서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자력갱생본보기공장이 역시 다르다고, 공장안에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과 혁명에 대한 최대의 충정심의 표현이고 가장 고결한 조국애인 군자리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군자리로동계급처럼 투쟁한다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돌전으로 최첨단약전기계제품을 반드시 만들어낼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합심하여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해병들은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퇴성마냥 터쳐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봄빛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해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군부대에 쌓인 경과 자동보충을 기념으로 주시고 해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혁명사

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수령님께서 보아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험항행을 지도하신 고속수송정 6251호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부대 지휘부청사를 돌아보시면서 부대지휘관리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군부대를 맡겨진 전투임무의 특성에 맞게 더 잘 꾸리며 항일유격대식 부대지휘관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

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부대의 도서실과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함선종합훈련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부대 관하 5편대 1중대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해병들이 매일 급식하게 될 콩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 콩창고를 특색있게 꾸려놓은것을 보시고 해군부대들을 돌아보면 어디서나 이런

풍경을 볼수 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군부대에서 올해에 진행한 식수정형도 알아보고 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주변은 물론 주둔지역을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군부대가 싸움준비와 부대지휘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에 의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역사적사건이 있을 때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간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에서 튼튼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위대한 승리의 3년이었다. 지난 3년은 또한 온 나라의 남녀로소도 또 한분의 탁월한 정치가, 절세위인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온 격동의 나날이기도 했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의 연단에서 높이 울려오던 힘과 열정과 승리의 신음이 한껏 넘쳐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기의 전력이 있고 종국적 승리가 있다.

지난 3년간 공화국은 이 궤도를 따라 줄곧 곧바로 달려왔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이 제시되고 자위의 핵역제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인

위대한 계승과 승리의 3년

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까칠봉초소, 장제도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비롯한 최전연의 인민군초소들과 부대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적대세력을 단숨에 제압하기 위한 필승의 전범도 가르쳐주시고 병설과 식당들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세심히 돌보아주시었다.

반공화국호전세력이 남조선 전역에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군사장비와 무력을 전개하고 불장난소동에 열을 올릴 때 령공을 통제로 비워놓고 평양에서 전군비행사대회를 가지도록 하신것은 천만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파시였다.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모든

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안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고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각군중, 병종들의 훈련도 조직지도하신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더욱 완성되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남조선 언론들도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북의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고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해보면 그 특

징이 변화무쌍하다는것이다. 언제인가 군부대를 시찰할때 김정은최고사령관은 현대전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수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모범으로 이를 보여준 셈이다.》고 하면서 그이의 비범한 령공술을 격찬하였다.

공화국을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이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결심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온 나라가 물라보게 달라졌으며 도처

에 새로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에서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욱 높이 울리고있다. 과학중시의 추진력으로 비약의 불길이 도쳐서 타오르고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안고 약동하고있으며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펼쳐진 데 이어 바다에서는 황금해의 새 령사가 펼쳐지고있다. 세포등판의 대규모축산기지의 건설도 완공을 눈앞에 두

고있다. 교육에서는 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체육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성과들이 이룩되며 체육강국건설이 이제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사색으로 이 땅에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이끄시는 그이의 령도의 근처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이 있다. 나날이 문명해지는 인민들

의 모습에서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서 사는것 같다고 하시는 원수님이다.

인민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 ...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기에 인민은 그이를 진정으로 따르고 받들며 령도자와 숨결도 밟길음도 함께 하며 강성국가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것이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이 땅에 세기적변혁과 기적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앞으로도 공화국은 백승의 령사만을 새겨갈것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그날은 머지않아 오고야말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공사가 마감단계에서 빠르게 추진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치와 전망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1)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시대인 오늘도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인 관심과 힘이 들려지고 경제발전도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 력사적인 결론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은 더 설명할 나위도 없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건강, 활동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공화국의 경우에도 식생활향상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절실히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나서고있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시기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인민생활향상이라고, 그러자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원수님께서 농

산물 생산, 수산물을 3배 이상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식량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을 강성국가건설의 주력방향으로 정해주셨다.

지난해에는 공화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농업부문에서 이미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분조관리제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 비료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최우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농사에 모든 령력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의 실시로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가 높아진 결과 지난해 《백년래의 왕가물》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날씨에서도 레년에 보기 드문 호

못한 농사작황을 마련하였다는것은 공화국에서 식량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있다. 불철영농기에서 시작된 공화국의 농촌들에서는 이해에도 농사를 잘지어 쌀로써 사회주의를 수호하려는 열의가 드높은 속도에 벼모판조정 등 농사준비가 한창이다.

먹는 문제는 주식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남새도 많이 로리하여 먹어야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영양성분도 보충하고 식생활의 질도 높일수 있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돌아보시고 전국도처에 남새은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고 각지에서 추운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하기 위한 온실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원수님께서 품소 안주신 송학협동농장 남새은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지에 나가시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버섯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좋은 음식물원자재로 주목을 받고있다.

버섯에는 단백질과 합수탄소, 지방 등이 많아 질 좋은 부식물로 알려져

있다. 공화국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여러 농장들과 기관, 개인집들에서

버섯을 자체로 생산하여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규모적인것이었다. 버섯이 다시 주목받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앙버섯연구소 현지지도였다. 두해전 7월 어느 한 군부대에서 건설한 버섯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버섯생산을 늘이면 균을 농업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버섯공장들을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 건설하여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에 따라 버섯공장의 본보기공장으로 건설된것이 평양시버섯공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생산을 시작하지 몇달 안되었지만 벌써 수백의 버섯을 생산하여 평양육아원, 예육원시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올해 정초 완공된 이공장을 돌아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한 화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당정책을 실천으로 받아들이는 단위들을 찾을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엮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최단기간내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령도자의 구상과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대규모과수종합농장으로 전변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과일산지들에서도 맛있고 영양가높은 새 품종의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어 온 나라에 과일향기를 풍겨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처장 김인수

참매로 보는 해외의 힘

어제나 오늘이나 조선반도 남쪽에서 지속적으로 강행되는 과도한 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을 겨냥한것이고 《년례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합동군사훈련은 불의에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이다. 공화국의 통일 지향적이고 평화에 호적적인 립장과 야망을 외면하는 도전세력의 분별없는 책동에 대처해 국가방위를 사

에 있는 일이다. 그때 최첨단전자 및 광학정찰장비를 갖추고 1000여km까지의 상대속 중심을 정찰하며 그 어떤 비행기의 접근도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한다는 《RC-135》정찰기가 공중정찰행위를 감행했다. 하늘의 도적이고 양이를 발견하고 출격할 인민군비행사들은 앞뒤와 좌우로 민활하게 공중기동하며 20여분간이나 상대를 기가 질리게 다루었다. 그들의 비행술앞에 흔이 빠진 미군정찰기 조종사들은 10여m까지 접근했을 때 황천객이 되는 줄 알고 대경실색하였다.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용맹함에 그들은 기가 질려 전율하였던것이다. 만일 그때 인민군비행사들이 사격단추만 눌렀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당시 추격사건을 두고 세계 언론계와 군사평론계는 미국정찰기의 활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의 합법적으로 강행되고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위협에 두려워 제 나라 령공에 마다못대 드나들어도 아무런 대응도 못한다,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북조선만이 미국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비행기는 항공 및 반항공의 핵심이며 비행높이와 항속거리, 비행속도는 비행기의 전투적능력과 현대화수준을 평가하는 기본지표로 된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라는 구호밑에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인민군대의 항공무력은 각이한 기종의 비행기로 조화롭게 장비되고 자기 식의 전범을 가지고 공중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할수 있는 실천능력을 겸비하였다.

지난 1월 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때였다. 비행대와 잠수함부대가 적항공모함을 공중과 수중에서 기습돌격하는 전범을 완성하고 전투조법과 지휘 및 협동을 련마하는데 목적

을 둔 훈련에서 비행사들은 조처장으로 바다우를 스칠듯 비행하며 그물같이 촘촘한 《적》의 반항공망을 뚫고 적항공모함으로 접근하여 상대가 손쓸사이없이 도약습격기동을 하였다. 그날 훈련을 지켜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처공비행과 도약습격기동에 대해 비행사들이 정말 잘 한다고 하시며 국조인 참매를 방불케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비행기와 참매의 비유는 참매가 날으는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수호의 폭음을 울리는 항공군을 무적의 비행대로 강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령장의 장군식표현이라 해야 할것이다.

돌아올 기를대신 폭탄을 만직재하고 구름속천리, 불길속만리도 단숨에 뚫고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정밀타격으로 초토화할것이라는것이 인민군비행대의 멀적의 기세다. 조미대결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산하려는 공화국의 군력과 대응의지에 대해 남조선언론 《통일뉴스》, 《동야의 문》은 《김정은제1위원장님 단행결심을 내린 조국통일대전은 세계전쟁에서 류례가 없는 새로운 방식의 21세기전쟁이 될것이며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북미대결은 타협없는 판가리전이다.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중지를 찍을 때까지 그리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미국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중단을 꿰는 꿰는다는 점에 서 과거와 다르다.》라고 했고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세계는 조선의 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하였다.

하늘에는 참매가 날고 땅에는 백두산소랑이와 같은 자위무력인 방선을 지키는 이 땅은 불패의 보루이다.

본사기자 리 설



고산과수농장에서 과일대품을 안아오고 있다.

학생교복에 깃든 후대사랑의 찬가는 영원합니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을 반겨 꽃천지가 펼쳐졌습니다.

민발해가는 백화수에 기쁨에 웃고 감격에 눈물 머금은 《꽃》들도 활짝 피어났습니다. 새 학기를 맞으며 온 나라의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의 학생들이 당의 은빛정인 새 형태의 교복들을 차려입은 모습이야말로 자연의 천만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바라볼수록 남다른 걱정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오래동안 경공업부에서 사업하면서 학생교복문제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저이기에 새겨야 할 의미와 흥분이 누구보다 큰 것입니다.

웃이 날개라고 더욱 예뻐지고 의젓해진 새 교복차림의 자녀들을 보며 온 나라 학부모들과 인민들 모두가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대할수록 가슴속 격정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두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었습니다.》

교복에 대해 생각하면 해방된 이듬해 가을이 먼저 떠오릅니다.

주체 35(1946)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정으로 첫 입학학생들이 들어섰습니다. 누구나 없었던 새 조건의 첫 대 학생이 되었다는 긍지와 기쁨에 넘쳐있었지만 차림새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작업복이나 배짱방이를 걸친 남학생들, 어머니가 입던 물넠은 무명치마저고리를 몸에 맞춰 고쳐입은 저를 비롯한 녀학생들, 신발들도 고무신이나 로동화 등이었습니다.

갓 해방된 나라의 형편에서 누구도 그것을 흠으로 여기거나 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심려를 금치 못해하시겠다고 합니다.

머칠후 대학의 한 일꾼을 부르시며 지금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생들에게는 옷과 모자를 통일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신 수령님께서도 교복형태와 색깔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도안을 완성시켜주시고 짧은 기간안에 교복생산을 끝내도록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었습니다.

얼 마 후 우리 모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육친적사랑이 깃든 새 교복과 모자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물라보게 변한 차림새가 너무도 놀라워 저저마다 거울속에서 떠날줄 모르면 될, 가슴속에 넘쳐나는 감사의 정에 온밤 잠들지 못하던 근 70년전의 그날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듬해 봄이 되자 또다시 여름옷공급 문제를 알아보고 일꾼들이 준비를 미리미리 갖추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해당 대책들을 세워주신데 이어 뜻깊은 탄생기념일 전날에는 견본용 여름학생옷을 입은 대학생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여 천의 질이며 교복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4월 29일까지는 여김없이 다 해입힐테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었습니다.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든 여름교복을 또다시 받아안게 된 우리는 또 이들도 자랑스러운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입학생이라는 긍지와 더불어 나라에서 마련해준 첫 교복을 받아안은 복받은 세대라는 행복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첫 교복의 혜택자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자들과 좌경사회주의자들의 무관심과 박해로 마안산일영의 읍담말에서 병마와 기한에 떨며 울고있던 아동단원들을 위해 강반석어머님께서 손끝에 피가 나도록 샅일을 하여 한꺼번에 해입혀준 마안산사연꾼은 돈 20원으로 마련하여주신 새 옷, 그것이 이 나라 아이들의 첫 교복이 아니었겠습니까.

해방된 새 나라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입학생들이 받아안았던 교복을 1950년대 후반기에는 온 나라 학생들이 다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전쟁으로 파괴되고 령락된 나라를 재건하던 그때 몸소 내각협의회를 소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해 주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입은 문제해결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선언하시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교복을 생산할 때마다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학생교복생산지도소조를 조직하고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생산공급하도록 정연한 체계까지 세워주시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철따라 무료로 교복을 해입히는 것이 사회주의시책으로 공고화되어 년대와 세기를 넘어 련면히 이어지고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교복력사에 깃든 하많은 사연들을 열백발을 새운들 어찌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겹쌍인 피로를 풀어드릴것을 절절히 바라는 전체 인민의 소망을 담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에 따라 어느 한 지방으로 내려가셨던 수령님께서 한겨울날 외투도 입지 못하고 밖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보시고 모처럼 마련되었던 휴식을 미루신 이야기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줍니다.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도경제부 일꾼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양으로 올라오신 즉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설명절전으로 솜옷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습니다.

겨울옷이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몸소 시제품들을 보여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도 만족하시며 이번에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겨울옷과 외투를 다 공급해준다는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라고 하시며 앞으로 계절에 따른 아이들의 교복공급날까지 정해주시었습니다.

여름옷은 5.1절까지, 봄, 가을 옷은 10월 10일까지, 겨울 옷은 12월 1일까지!

과연 이 세상 어디에 한 나라의 수령께서 이렇듯 날자까지 짚어가며 온 나라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해 가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양근처의 한 편직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저에게 율해안으로 어느 교종의 아이들에게까지 세타를 입혔수 있겠는가를 한번 따져보라고 이르시였습니다. 노련한 하면 설명절전으로 소학교와 중학교학생들에게는 해입힐수 있다는 저의

답변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유치원 아이들도 입고싶어할것이라고, 그들에게까지 옷을 다 해입히도록 로동계급에게 호소해보자고 하시며 자정이 가까워올수록 또다시 수도의 어느 한 옷공장을 찾으시었습니다.

이렇게 한바중의 현지도도 를 마치시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고급세타를 해입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으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라고, 오늘은 발편잠을 잘것 같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차가 수도의 중심거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승용차등받이에 기대선 쪽잠에 드신 수령님의 모습을 비우는 순간 두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야말았습니다.

주체 66(1977)년 4월, 몸소 안주시 연풍중학교를 찾으시여 남긴 불멸의 화폭은 또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갓가져 색깔의 새옷차림의 남녀학생들이 펼쳐놓은 《꽃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모두 멋쟁이신사가 되었다고,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다고, 내 한평생에 기쁜 날이 같아 있었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이라시며 그러도 만족하시던 어버이수령님, 그러시고는 몸소 사진기를 드시고 한장, 또 한장 새옷을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주시고 전체 교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체 83(1994)년 7월 6일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앞섭니다.

이날 불원하신 몸으로 경제부 일꾼협의회를 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저를 바라보시며 올해 학생교복을 다 해입혔는가도 다정히 물으시었습니다.

6월말까지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새옷을 다 해입혔다고 말씀드리자 잘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옷을 다 해입혔다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온 장내가 환해지도록 밝게 웃으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국가적인 중대사를 토의하는 회의석상에서까지 교복문제에 대해 그토록 마음쓰셨으니 정년 수령님의 한생은 아이들에 대한 애착한 정과 열화같은 사랑으로 충만된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학생교복생산과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교시는 근 1천여차,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어린이옷공장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찾으신 회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웅변해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어가신 그렇듯 숭고한 후대사랑의 길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었습니다.

미제가 도발한 판문점사건으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던 주체 65(1976)년 10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국방력강화문제가 심중하게 토의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도중 어버이수령님께서 문득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사철 입을수 있는 옷을 만들어줄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모두가 그제 아연해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동안 당에서 마련해두었던 자금이 좀 있는데 그것으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모든 해입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회의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학용품 을 선물로 줄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던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타산안을 보아주시고 선물을 줄바에는 무엇어든지 아까지 맡아야 한다 하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성하도록 하시고 100%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고 다시금 가르쳐주시며 교복생산전투를 진두지휘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전야와도 같았던 것처럼 긴장한 시기에 각종 옷감을 실은 대형화물들과 국제렬차들이 대양과 대륙을 넘내고 려객기들은 짐을 싣도록 내보내주시며 그토록 기뻐하셨던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이렇게 생산된 새 교복본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각이한 나이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먼저 입혀 옷매무시도 살펴주시며 그러도 기뻐하셨던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마침내 주체 66(1977)년 4월 15일을 맞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600여만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옷과 신발, 가방과 학용품, 벵타이, 녀학생들의 리본과 머리수건까지 선물로 받아안은 경이적인 사변이 펼쳐져 온 나라를 감격에 실레고 세계는 선망과 경탄으로 끓어번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80년대속도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나날에도 어디서나 로력과 자재, 자금문제가 실박하게 제기되었지만 교복생산안은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었습니다.

1990년대 중엽 뜻밖에 당한 민족의 대극상과 자연재해를 기화로 극도에 달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과 봉쇄책동으로 경공업부문에서도 한도리의 실, 한투구리의 천도 귀하게 되자 교복공급을 일시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들도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보시고 것처럼 기뻐하시던 학생들의 교복차림이 달라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매일수록 교종별, 나이별 특성에 맞게 교복을 더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도록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어느해인가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교복생산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요부문에 긴급히 써야 할 자금을 둘러도록 하시어 교복이 계획된 날자에 공급되도록 하시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학생들의 교복생산의 동음은 그치지 않았고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는 줄기차게 흘렀던 것입니다.

하기에 언제나가 우리 나라에 왔던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정부대표단 성원은 작별에 앞서 우리에게 방문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습니다.

《한두명도 아닌 전국의 아이들에게 교복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주고있는 사실은 《태양의 도시》, 《유로피어》를 비롯한 공상소설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회한한 일이다.

김 일 성 주 석 님 과 김정일평도자님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후대사랑으로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인류가 간절히 바라라고 소원하던 리상사회를 공상이 아니라 현실로 꽃피우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러럼 숭고하고 열렬한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력사, 우리 아이들의 교복의 력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12월 어느날 김정숙평양 방직공장을 찾으시어 하신 말씀은 온 나라 학부모들과 인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학생교복천선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교복생산과 공급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시던,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러시면서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결연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의 뇌리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 교시들이 메아리쳐왔습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순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우리가 오늘처럼 어려운 때에 선군을 택한것은 아이들의 웃음넘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지켜줄수 있다면 지금보다 몇배, 몇천배 어려운 고생을 한다 해도 끝까지 이 길을 갈것이다.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과 후대론 정을 그대로 체현하고 구현해가시는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피눈물속에 맞이하였던 3년 전 3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전국의 학생소년들에게 공급할 교복이 다 만들어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쁨에 넘치신 어조로 자신께서 학생들의 교복을 보아주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새 교복을 입은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절절히 말씀하시었습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모든 학생소년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숨배어있는 새 교복을 받아안았을 때 온 나라 남녀노소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목메어 부르며 격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온 거리에 더 밝고 아름다우며 생기발랄한 기분을 더해주는 이번의 새 교복은 불수록 멋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을 주는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남학생들의 단긴깃교복과 전자주석웃옷에 단회색치마를 받친 녀학생교복, 회색갈의 웃옷에 끈청색바지를 갖춘 남대학생들의 교복...

모든 형태와 색깔, 옷매와 아래웃의 색조화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미학적요구, 새 세기의 현대적미감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는 그야말로 《왕》들의 옷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세부에 얼마나 뜨겁고 다심한 친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는지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2년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도도강행군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교복도안과 견본품들을 보아주시며 교종별에 따라 색깔과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소학교와 중학교 남학생들의 교복은 단긴깃양복이 좋으며 녀학생교복 웃옷은 통깃 그대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복웃옷과 바지색갈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라

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몇달후 완성된 교복도안을 토다시 보아주시며 남학생교복 목깃을 각이 나지 않게 하고 약간 곡선을 주면서 조금 크게 해야 하겠다고, 녀학생들의 교복색갈과 형식이 새로운데도 안대로 만들어입히면 부모들이 좋아할것은 물론 거리도 환해질것이라고 그토록 만족해하시었습니다.

9월에는 새 교복본본을 입은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만나시어 차림새를 일일이 보아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탄생 103돐을 맞으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롭게 제작된 교복을 공급할 데 대한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어 오늘날의 회한한 현실을 펼쳐 주셨던것입니다.

오랜 기간 경공업부에서 일해온 저이기에 수백만 학생소년들에게 한꺼번에 교복을 해입히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드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더우기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맛아가려는 원수들의 발악적책동이 극도에 이른 지금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경제타산으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것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교복생산과 공급문제를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과 뜨거운 정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주는 성스러운 일로,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중대사로 여기고 완강하고 높이 크게 추진해 나가고계시는것입니다.

교복은 일정한 모양과 규격으로 통일시켜 지는 학생웃옷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제관심과 보호를 유도와고 집체성과 규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이래 그 력사도 꽤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복을 어찌 그저 학생웃이라고만 할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과 열화같은 헌신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결정체라고 저는 소리높이 웨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우리 공화국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온 나라 청년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한낱헌신이 사랑의 새 교복을 해입히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 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습니다.

유독 남조선피괴물만이 속이 뒤틀러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을 해대며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시책을 시비증상하고있습니다.

피괴물들이 어린이천국, 배움의 천국으로 찬탄한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현실이 남조선에 알려지니것을 막아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지만 그러한 모략소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존재하고 백두의 전통이 계승되는 한 국가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인민적시책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라고 확언하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새 세대들에게 국가가 교복을 해입히는 고마운 시책은 영원할것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입니다.

내각 명예참사 김복신

질 좋고 맛 좋은 기초식품들이 쏟아진다



조선사람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식품을 꼽으라면 아마도 장을 꼽아야 할 것이다. 조선사람에게 간장과 된장이 없는 식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

옛날부터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는 말이 전해져오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장이 우리 민족의 행복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으며 그만큼 장 담그기가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장은 강냉이, 밀, 콩 등의 낱알과 소금, 물고기와, 고기 등 원료에 따라 장 담그는 방법과 장의 가지수, 질이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장을 담가서 익히는데 열기적적가공과 함께 미생물학적, 생화학적과정들이 동반되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는것으로 하여 가내수공업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는 장생산을 공업화하여 평양시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주고있다.

1946년 8월 당시 평양장유공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생겨난 공장은 1960년대에 벌써 연간 1000t능력의 맛내기생산공정까지 갖춘 큰 공장으로 확장되었다. 그 후 여러차례의 개건현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은 된장, 간장은 물론 정제기름, 맛내기, 정제소금, 비타민E, 레시틴 등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전변되었다. 이 공장의 전반적생산공정의

자동화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경영활동에 대한 조종,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경영활동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으며 공장내의 전반적인 제품생산조직과 품질관리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통합생산지령체계가 확립되었다.

하여 종합지령실을 통하여 공장전반의 전력관리와 증기관리, 물관리뿐 아니라 원료 및 반제품, 제품들에 대한 계량과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새로 꾸린 정제기름, 맛내기, 정제소금, 비타민E

및 레시틴의 생산공정과 포장공정도 자동화되어있다. 특히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완성한 된장조각설비와 생산공정은 높은 수준에 이른 이 공장의 자동화, 무인화를 잘 보여주고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국산화가 실현되니 제품의 질적수준이 올라가고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초식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또한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지금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국내는 물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가진 식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수요가 높으니 《봄맛이》식품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봄맛이》상표를 단 기초식품들이 생산되어 나오고있다.

《봄맛이》상표! 이 상표를 보느라면 새싹이 움터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심적마냥 마음이 즐겁고 상쾌해진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이 《봄맛이》제품은 오늘날 수도시민들 누구나 즐겨찾는 기초식품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된장, 간장, 고추장, 맛내기, 기름을 비롯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하나같이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가장 인기

를 끄는것은 장의 《좌상》이라고 말할수 있는 된장이다. 된장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지혜와 창조력, 독특한 식생활문화를 특징짓는 우수한 민족 식품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된장을 음식의 맛을 내는데서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팔진미》, 약효가 높다고 하여 《팔방약음식》이라고 부르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왔다.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 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된장생산방법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된장의 질을 종전보다 훨씬 높여 다른 여러 기술혁신경쟁에서 많은 메달증과 상장, 증서를 받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조화로운 맛과 산뜻한 향기로 음식의 맛을 돋구는 간장이며 단맛과 감칠맛, 매운맛을 내는 고추장 역시 그 맛과 질이 하도 좋아 이 공장의 기초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식품의 종류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

호와 구미에 맞게 그 가지수도 부쩍 늘어났다. 간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고체간장, 초간장, 마늘간장, 들깨간장, 생강간장, 발효간장, 단간장 등 여러가지의 간장을 생산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에스레르화반응공정, 스테롤분리공정, 분자중류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롭게 구축 및 보강함으로써 쓸모없이 버려지던 부산물을 질 좋은 제품으로 전환시켰다.

밭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언제나 세계를 보는 이 공장 사람들의 열의와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장을 만들겠다.》는것이 이 공장 기술집단과 종업원들의 드높은 목표이다.

요드된장, 저염된장, 밀쌈장, 짜장, 콩메주, 발효콩가루, 불고기용간장, 물고기구이용간장, 남새가공용간장, 켈리드간장, 핵산조미료, 발효식초 등 ...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맛있고 영양가 높은 《봄맛이》기초식품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키종한것 (3) ◎

화 목 한 하 나의 대 가정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기들이 몸담고 사는 이 나라, 이 사회를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정당하게 부르곤 한다.

하나의 대가정! 이 부름에는 조국과 사회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깊은 애착과 뜨거운 사랑이 비껴여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것은 이 땅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인간의 생활에서 가정은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삶의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이다. 가정의 보금자리, 살뜰한 정이 없다면 그 인간의 삶은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행할 것인가. 직장일에 치치고 마음이 피로왔다가도 가정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 소근근근 녹아들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힘을 내어 출근길에, 등교길에 오르곤 하는것이 인간들의 삶이다. 그 가정의 울안에서는 밖에서는 보기 힘든 특유한 혈연의 정이라는것이 있다. 끊을래야 끊을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수 없는 진하고 끈적끈적한 이 정, 그 살뜰한 혈연의 정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것이다.

공화국은 온 나라가 말그대로 하나의 큰 가정이 되어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는것이 사회적미풍으로 되고있는 화목한 나라이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듯이 이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는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고계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고 오늘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그리고 그 슬하에

서 삶을 꽃피워가는 인민이라는 천만자식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따르듯이 자기 령도자를 친 아버지로서 모시고 받들며 따르고있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다. 1970년대초 일본의 전형적인 탐방기자 다카기 다케오가 공화국을 방문하였었다. 그는 그해의 마지막날 영평스키편지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진행하는 평양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만면에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궁전에 들어서시는 위대한 주석의 옷설을 부여잡고 아이들이 저저마다 《아버지원수님!》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광경을 본 다카기는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었다.

아버지!

네 남매를 두고있는 그 아버지라는 그 정다운 부름을 왜 모르랴만 수령을 두고 부르는 호칭으로서 너무도 생소하고 놀라왔던것이다. 일본왕의 행차앞에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던 자기 나라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할때 그것은 실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다카기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그의 안부도 물어주시며 그와

격식없는 대화를 나누시었다.

위인의 소탈한 인품이 그의 온몸의 긴장을 순간에 풀어주었다고 한다.

다카기는 후에 이날의 감동적인 사실을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나는 김일성주석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세심하고도 따사로운 배려가 그 얼마나 뜨겁게 베풀어지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꼈다. 그리고 주석께서 술직하시고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않으시면서 소박한 인간성 그대로 인민들과 접촉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였다.

과연 아버지이시다. 어린이들이 그이를 아버지원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만이 아니다.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선

생들도 그이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 그것은 김일성주석과 이 나라 인민의 관계이다. 주석께서는 인민을 사랑하시며 인민은 그이를 받드는 가장 뜨겁고 동지적인 애정의 결합인것이다.》

공화국에서 1960년대초에 창작되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누구나 알고 즐겨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그것이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뎠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면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가슴뭉클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다. 비록 눈부시게 화려하고 번쩍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포근하고 따스한 사랑의 집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어서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친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이 생활이 우리에게 제일 좋고 세상에 더는 부러울것이 없다는 긍지와 행복의 마음이 노래의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되어 끊없이 울리는 인민의 나라이다.

정말로 이 나라 인민들의 집은 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이고 아버지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하나의 대가정, 이는 공화국의 크나큰 재부이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자랑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하에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부럼없이 살고있다.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고 인민의 꿈과 이상을 찬란한 현실로 만드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와 헌신의 나날을 보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자기들의 일터와 마을, 초소들에서 만나뵈오면 오래동안 헤여졌던 아버지를 만나는것보다 더 기뻐하고 감격에 겨워 그 자애로운 품에 너도나도 안겨들고 격정의 눈물흘리고 목메여 만세를 부르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

령도자는인민을 제일로 위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변함없는 한 마음으로 받들고 따르는 이 진실하고 뜨거운 혈연의 관계를 지구상 또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으랴.

하기에 한 해외 동포는 자기의 글에 《련인들의 사랑조차 무색할 저런 관계를 어떻게 령도자와 백성이 맺을수 있을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인간본태가 살아있고 청순한 인성으로 보살핌

과 나눔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미덕으로 자리잡은 사회, 령도자와 인민이 부모와 아들딸의 관계를 맺고 받들며 사랑하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인류최초의 리상사회가 바로 복이다.》라고 서술하였던것이다.

지구인력과도 같은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 관계, 이렇게 맺어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대가정은 핵폭탄으로도 깨지 못한다. 그 어떤 바람이나 심리모략전으로도 령도자와 인민을 절대로 갈라놓을수 없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이다. 령도자가 없으면 인민이 살수 없고 인민이 없으면 애민의 꽃이 만발할수 없기에 피출처럼 하나로 련결되어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민고 의지하면서 더 살기 좋은 미래의 락원을 건설해가는 공화국이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는 력사적으로 어떤 사회적동란이나 사소한 침체, 동요도 없이 사회가 생기는 이 진실하고 뜨거운 혈연의 관계를 지구상 또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으랴.

하기에 한 해외 동포는 자기의 글에 《련인들의 사랑조차 무색할 저런 관계를 어떻게 령도자와 백성이 맺을수 있을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인간본태가 살아있고 청순한 인성으로 보살핌



본사기자 김준경

철성봉의 영령들은 말한다(2)

— 재북인사들의 묘를 찾아서 —

스스로 입북의 길에 오른 사실만으로도 대답이 명백하지만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반복을 누린 생활은 이에 대한 산증거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의 정계인사들이 평양에 도착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교외의 풍치좋은 곳에 그들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그해 추석날에는 객지에서 추석을 맞으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겠는가고 하시며 풍성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후퇴의 길에 오른 그들을 위해 특별열차를 내주시었고 기차길이 없는 곳에서는 승용차를 타고가게 해주시었다. 목적이인 만포에 도착한 그들은 뜻밖의 광경에 몸둘바를 몰랐다. 뜨뜻한 온돌방에는 두툼한

이부자리와 고급모포로부터 치솔과 바늘에 이르기까지 일체 생활필수품들이 다 갖추어져있지 않는가. 윤기나는 장판과 무늬고운 양단이불, 조선식베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스며있는 따뜻한 사랑은 끝내 그들을 울리었다. 정녕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재북인사들은 온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겪던 시기에도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생활할수 있었고 전후에는 평양에 올라와 생의 말년까지 복된 삶을 누릴수 있었다.

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을 아프게 한것은 전쟁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 평양으로 묘를 이설해오지 못한 인사들, 똑똑한 묘도 없이 초야에 묻혀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였다. 전하의 나날 남조선의 명망있는 인사들속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몇몇씩 팔을 걷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행길에 오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던중 로상에서 뜻하지 않게 병을 만나거나 미군비행기의 폭격, 반동들의 마수에 걸려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형세가 급했으므로 묘를 제대로 쓸 경향이 없었다. 그후 세월의 흐름속에 고인들의 지우들은 물론 북에 들어온 고인들의 가족, 친척들조차 그들이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져가고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고계시었다. 1978년 1월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동원의 이름까지 친히 써놓아 주시었다. 리광수, 그로 말하면 우리나라 신소설문학의 개척자이며 작가활동초기에 좋은 작품도 내놓았고 한때 조선독립을 웨치며 상해립정에도 관여하면서 《독립신문》 주필까지 하였으나 그후 전향하여 일제가 강요한 《창세기대》 때 왜왕이 즉위한 교장의 산이름인 《가야마》를 본따 선참으로 자기 이름을 《가야마》로 고치고 친일매국행위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가.

김동원 역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사람으로서 일본의 중의원 의원자리까지 앉았던 사람으로서 해방후에는 극우익의 편에 서서 리승만의 지우들은 물론 북에 들어온 고인들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져가고있었다. 그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묘지이설 및 유골발굴대상자명단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올라있지 않는 리광수와 김

광폭정치 의 높은 봉우리

달이 가고 해가 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세월의 흐름속에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통일성업에 헌신분투해오던 재북인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재북인사들이 별세할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한명 또 한명의 재북인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김동원 역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사람으로서 일본의 중의원 의원자리까지 앉았던 사람으로서 해방후에는 극우익의 편에 서서 리승만의 지우들은 물론 북에 들어온 고인들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져가고있었다. 그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묘지이설 및 유골발굴대상자명단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올라있지 않는 리광수와 김

동원의 이름까지 친히 써놓아 주시었다. 리광수, 그로 말하면 우리나라 신소설문학의 개척자이며 작가활동초기에 좋은 작품도 내놓았고 한때 조선독립을 웨치며 상해립정에도 관여하면서 《독립신문》 주필까지 하였으나 그후 전향하여 일제가 강요한 《창세기대》 때 왜왕이 즉위한 교장의 산이름인 《가야마》를 본따 선참으로 자기 이름을 《가야마》로 고치고 친일매국행위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되여 그 이듬해 경치수려한 철성봉에 오늘과 같은 재북인사들의 묘소가 마련되여 이미전에 애국렬사릉에 안장된 김규식, 조완구, 조소앙, 오하영, 최동오, 류동열, 엄항섭, 윤기섭선생을 제외한 60여명의 재북인사들이 이곳에서 재회하여 함께 안식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스스로 북행길에 오른 민족주의 인사들의 신념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었습니다.》 현영애부원은 맑은 물, 흐린 물 가림없이 다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남반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을 한품에 안아 빛나는 삶을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의 은정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한명 또 한명의 재북인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한명 또 한명의 재북인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한명 또 한명의 재북인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한명 또 한명의 재북인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한명 또 한명의 재북인사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제일로 가슴아파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입북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였던 백상규선생이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비통해하시며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평양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시는 한편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었다. 그후 남조선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그것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고인의 장지를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시고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이들은 평양시교외의 풍치 좋은 곳에 정하게 해주신 수령님의 은정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수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 (5)

주 신 신은미교수선생님! (이번에 남조선에서 강제출국당한 재미동포)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런 혈육의 정을, 통일없이 맞고 보낸 한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70년세월을 울며 태우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천도 만도 아니고 백만이고 천만인데 아직도 통일을 외우는자들이 선생님에게까지 그 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하니 참말로 가슴이 미여집니다.

이 많은 교회에 교구장까지 오래한 착실한 교인입니다. 우리 경영이 말대로 하면 《손이 참 따스한 미국할아버지》입니다. 그날은 마침 우리 경영이가 《전국아동음악레비콘방송추진》에서 피아노연주로 1등을 한 자랑을 안고 《미국할아버지》 앞에서 《꽃놀이》

우리 민족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북에 가보았는데 보니까 잘살더란 말이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도 사문란적의 락인을 찍어 쫓아보내야 하는 일이었던 말입니까?

저 손품금연주를 했고 후엔 김정일장군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이탈리아에서 류학을 마친 국제콩쿨수상자입니다. 동생 중석이네도 아들이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을 졸업했고 딸은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예술출판사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

《자유세계》요 떠드는 위정자들이여 입이 생긴대로 떠들레면 떠들라 그러나 우리에게엔 통일이 있어야 하겠다 끊어져 피가 돈는 우리 민족에겐 삼천리강토가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질 통일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민족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북에 가보았는데 보니까 잘살더란 말이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도 사문란적의 락인을 찍어 쫓아보내야 하는 일이었던 말입니까?

신은미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고려호텔에서 만났던 그날은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서 온 날이었습니다. 외삼촌소개로 선생님과 인사를 하였으니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외삼촌은 전쟁통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손우에 누나 둘은 북으로 갔으니 결국 빨갱이가족이 되어 이민으로 여기저기 흩어지까지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시다가 한 착한 교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영주권을 얻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여 조선사람

안엔 인민체육인인 세계력기선수권대회 금메달수상자도 있습니다. 이런 김상훈가정이 오래간만에 만난 《미국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웃고 떠들었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겠습니까. 이기가 막힌 현실안에 아버지의 운물에 맞추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필자의 가족

《포드》요 《톨스토이스》요 고급차 타고다니며 《리산가족의 아픔》이요

《포드》요 《톨스토이스》요 고급차 타고다니며 《리산가족의 아픔》이요

철세의 등에 실려 흘러간 세월은 일흔년의 겨울이요, 일흔년의 봄인데 남북의 길은 하늘에만 열려있어 할머니와 손자는 땅이 서럽다 (작가 김상훈의 시 《절세》에서)

본다 철세의 등에 실려 흘러간 세월은 일흔년의 겨울이요, 일흔년의 봄인데 남북의 길은 하늘에만 열려있어 할머니와 손자는 땅이 서럽다 흐르는 물줄기가 바다를 이루듯 한뼘으로 모아야 할 만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줄에 얽매여있어



북과 해외에 흩어져사는 김상훈의 가족, 친척들 (2004년 10월 묘향산에서)

여전한 반복비방 보도

며칠전 남조선언론 《뉴시스》가 북에서 새 학기를 맞으며 학생들에게 교복을 내준 사실을 전하면서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다.》느니, 《어떤 경우에는 간부집 아이들에게만 공급했다.》느니 하는 확인하지 않은 말을 망탕 늘어놓았다. 이왕 북의 소식을 전하려면 제논으로 보지 못한 이상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인데야 북의 언론에서 전한 소식을 그대로 보도하면 그만일 것이다.

북이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이 너도나도 좋아하고 또 감동해하고있다. 비록 어린 학생이 없어 이번에 새 교복이 차례되지 않은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지난 시기 국가의 배려 밑에 공짜나 다름없는 누은 값으로 철따라 새 교복들을 받아안으며 자라온 세대들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후대사랑에 다들 가슴 뜨거워하고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무엇이 못 마땅해서, 아니면 덮어놓고 북을 비방하는



데 습관되어 그래서인지 안해도 될 소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 소리를 탕탕 해대니 그 언론보도를 북녘주민들이 전해듣는다면 얼마나 남쪽기자들을 손가락질하겠는가.

원래 남쪽기자들은 생겨먹기가 그래서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언론들의 반복비방 보도를 한두번만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위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는 남조선의 《뉴시스》와 같이 사실보도를 하지 않고 그 무슨 《소식통》이니 뭐니 하며 과장되고 지어 외곡된 기사들을 아무 꺼리낌없이 출판물들에 써내

보내는데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상대측에 대한 비방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이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만을 증폭시킬뿐이다. 이번에 북에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백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한낱한 시에 일식으로 계절별로 따르는 새 형의 교복들을 마련하여 안겨준 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며,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 수지타산을 모르는 인민적정책의 산물이다. 비록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식으로, 모두 자체의 원자재로 내대 학생들의 치마저고리에 이르기까지 생산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안겨주었다. 지금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으로 거리와 학교, 마을들이 얼마나 더 환해지고 보기 좋아졌는지 모른다.

남조선의 기자들이 북의 소식을 전하려면 이런 것을 취재해 보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지난 4월 1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검이 미국대사 리퍼트에 대한 공격을 단행한 남조선주민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들춰내기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자문한 결과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리유》도 달았다.

실로 미국앞에 서면 항상 난쟁이가 되는 남조선 권력의 비굴한 대미아첨이요, 자기 주민들에 대한 횡포무도한 폭압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에서 있는 최근의 미국대사징벌은 단순히 어느 한 외국대사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 이번에 징벌을 받은 리퍼트는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위에 군림하고있는 《식민지총독》, 남조선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김기종은 바로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미국에 응당한 정의의 징벌을 안긴 것이다. 그런데 정의의 징벌을 《살인미수》라고 하니 남조선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 검찰인가.

남조선검찰이 김기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들춰냈지만 진짜로 살인을 기도하고 또 엄청난 살인범죄행위를 무시로 저질러온 흉악한 살인범은

피고석에 있어야 할 살인범은 미국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살해하고 강간, 폭행을 무시로 감행해온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8.15적후 리승만의 정치고문으로 있던 문학봉은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이 《부녀자들에게 다치는대로 폭행을 가하였다.》, 《아프리카에 사냥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야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길가는 행인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곤 하였다.》고 개탄하고 저주하였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 시기 조선민족을 상대로 감행한 치명적인 살인죄악도 역사에는 생생히 기록되어있다.

미국이 무차별적인 폭격과 총격살해행위로 전 쟁기간 학살한 민간인수는 북에서 123만여명, 남



제가 죽인 조선사람의 시체를 쳐들고 사진찍는 미제아수

침략군, 강점군이 있는 곳에는 인민들이 항시적으로 마음놓고 살수 없는 법이다. 미군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 재난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얼마전에도 《아시아에서 최대》라고 하는 13km규모의 미군사격장이 있는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미군이 마구 쏘아댄 훈련용포탄이 마을에 날아들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이 미군사격장에서 날아온 포탄이 주민지대의 소나무밭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미군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쏘아댄 총탄이 영북면의 한 사무실에 날아들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그칠새 없이 감행하는 북침전쟁 연습소동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겪는것은 비단 생명의 위험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4일에는 미군이 쏘아댄 포탄에 의해 사격장주변 야산에서 불이 일어나 남조선주민들이 불을 끄려고 달려갔지만 사격장이 미군의 관할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많은 면적이 화염에 휩싸여 야산주변 여러 리의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3월에도 이곳에서는 미군의 야간사격 훈련도중에 발생한 산불이 사격장부지를 넘어 주변마을쪽으로 확대되어 3만㎡의 면적을 태워버렸다.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과 생명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감행하는 침략군의 이러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대규모항의 집회를 열고 삭발 등을

강점군이 있는 한...

진행하면서 《사격장주변 마을에 대한 안전대책과 피해보상, 사격장폐쇄》를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한편 언론들도 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강력한 항의시위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침략군의 전쟁연습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과 각계층의 투쟁을 널리 보도하고있다.

이에 당황한 현 남조선당국은 미8군사령관에게 도지사의 《서한문》을 보내다, 남조선국방부가 미군에 사격장주변지역 혐의 등을 건의한다 하며 인민들의 반발을 무마해보려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주둔 미군은 《사고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격훈련 잠정중단》이니 뭐니 하며 떠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군에 의한 《오폭》참사가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얄은 기만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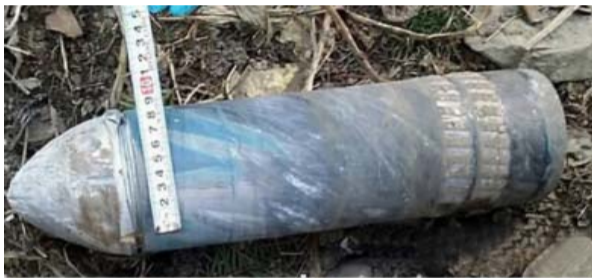
따지고보면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오폭》참사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북침전쟁소동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저들의 침략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짓밟아도 문제시될것이 없다

것이 양키식사고방식이 고 날강도적본색이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2000년 5월 8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매향리에 있는 미공군사격장에서 실전을 가상한 폭격연습을 벌리면서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여 11명의 남조선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고 700여채의 농가를 파손시킨 그날의 참상을 잊지 않고있다. 미군의 야만적인 폭격훈련으로 매향리라 불리워지던 이곳은 사람 못살 지역으로 황폐화되었다.

그칠새 없이 벌어지는 미국과 그에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 연습소동으로 온 남조선



미군이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주민지대에 마구 떨어뜨린 포탄과 피해입은 건물(↑↓)



장도가 제2의 매향리로 화하고있다.

어디서 날아오는 포탄에 연어맞아 억울한 희생에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게 된것이 남조선인민들이 겪은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현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만행에 대해 입 한번 벌기 하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상전의 전쟁책동에 춤을 추면서 《동맹강화》를 역스럽게 구걸하며 동족대결만 추구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강점하고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는 한 남조선의 그 어느 도시이건, 산골이건 안전한 지역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 또 무서운 참화가 빚어질지 알수 없다. 재난의 화근은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철

아니고 길이가 6백여리에 달하는 조선반도의 허리를 통째로 두동강냈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를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였다. 철도와 도로를 끊어놓고 마을들과 저수지들을 쪼개놓고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았다. 민족분열의 역사 70년이 지나고서도 해방동맹이 70코령의 로인이 된 오늘날까지도 갈라져 생사여부도 모르며 살아야 하는 조선민족의 이 비극, 미국 때문에 당하는 참을수 없는 이 아픈 세월이 가도 영원히 지워질수 없고 아물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민족을 상대로 천추에 씻을수 없고 용서할수 없는 온갖 살인범죄만행을 다 저지른 흉악한 살인제국, 악의 제국이다.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범으로 천번만번도 더 령사의 큰 피고석에 앉아 징벌을 받고 우리 민족의 철추를 받아야 할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살인범을 비호두둔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자는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 떠들어대고있다.

이 역시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들죄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아픔과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한두치정도도

리직었다.》느니 하며 갖은 구차한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송두리채 위협하고있는 미국의 핵무기는 《24cm의 파실칼》 정도에는 대비할수 없는 끔찍한 살인흉기이다. 한번 터지면 수만, 수십만명을 살해할수 있는 공포의 살인무기를 미국은 한두개도 아니고 무려 1 000여기나 남조선에 배치하고 우리 민족을 항시적으로 핵위협해왔다. 지난해 미국은 북과 남이 모처럼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려 적십자실무회담을 하고있을 때에조차 남조선의 직도상공에 전략핵폭격기들을 띄워놓고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런가하면 미국이 《3대핵전략무기》라



미군장갑차에 무참히 깔리운 남조선 두 여학생

《세월》로 1년,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 현실

바다도 통곡한다

남조선은 세 면이 바다이다. 동서해와 남해. 그 세 바다가 모두 풍랑이 사납다.

동해나 남해도 그렇지만 특히 서해는 연평도를 비롯하여 동족대결의 최대열점지역으로 화하여 인민들은 물고기잡이도 제대로 못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현 집권자는 모략적인 《천안》호 침몰사건을 동족과 련계시키며 대결을 고취했고 군부, 정계의 인물들이 제가 감해로 풀려가 북에 대한 《응징》, 《사수》를 떠들어댔다.

동해에서는 백년속적 일본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계속 불법을 일삼는다.

그런데도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독도보다는 일본과의 《미래지향관계》, 《동맹》문제에 더 신경을 쓴다.

그렇다면 남해에서는?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1년이 되어오지만 사고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세월》호를 인양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인민들의 눈물도 이제는 말라버릴 정도이다.

그러거나말거나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세월》호참사를 이북자식보듯, 쓴외보듯 하고있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집권자이하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서로 밀치고당치며 꼬리를 사리는가 하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을 음모로양모로 방해하고 질질 끌다가 인민들의 항의에 못이겨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반쪽짜리》로 대충 만들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진상규명을 위해 단식을 하는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죽었을것》이라고 야유하며 《시체장사군》이라고 모욕하기도 하였다.

슬픔의 현실에 같이 눈물을 흘리지 못할지언정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유가족들을 모독하고있으니

대죄 단식》이니 하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친미 굴종의 갖은 추태를 다 부리었다.

남조선의 수백명 아이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에는 팽목항에 《출석긋기》하러 가서 술판을 벌리고 사진을 찍던 때와는 전혀 다른 질이다.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요리조리 회피하며 질질 늦추어온 보수당국과 정객들이 미국대사정변사건 때에는 《철저한 진상규명》, 《배후세력조명》이니, 《중복척결》이니 하며 팽이처럼 돌아다녔다.

얼마나 대조적인 두 행동인가. 그들에게는 자기주인 수백명의 생명보다 미국대사 한명이 더 중했기때문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미국대사에게 갖은 야양을 떠는 이같은 행동들을 보며 《더러워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침을 뱉었겠는가.

그것을 지켜보는 세인의 눈길에도 남조선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대한 《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짙게 어린것은 당연하다.

《화환》을 보낸다 벽적이고 지어는 《석고

가 빨리 낫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어디에 가있었는가 하는것이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수십일이 지나서야 집권자는 《대국민담화》를 하고 억지 눈물을 흘리었다. 그리고는 바다에 수장된 아이들의 시신도 다 건져내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앞에까지 찾아가 만나달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원도 뿌리치고 만나주지도 않는 맹렬적인 기질도 보여주었다.

집권자만이 아니다. 그 수하의 장, 차관들이나 여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앞에까지 찾아가 만나달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원도 뿌리치고 만나주지도 않는 맹렬적인 기질도 보여주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것인가.

지금 보수집권세력은 《세월》호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을 바라는 인민들의 호소와 요구와 분노를 귀등으로 흘리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가 하면 수관을 핑기면서 돈타산부터 앞세운다.

얼마전 보수집권세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는 《시행령》이라는것을 발표했다.

그에 의하면 《세월》호참사와 관련있는 해양수산부, 안전처 등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

의 업무를 주관하는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마치 살인자가 자기의 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변호한다는 식이다.

《새누리당》의 어떤자는 《세월》호의 인양을 중지하고 《추모》나 하자고 떠들고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수억대의 자금이 들어가고 1년일지 2년일지 기일도 기약하기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것이다.

사고조사의 첫 대상이나 다름없는 선체의 인양을 그만두자는것은 범죄수단이자 범죄장소이며 기본적인 물적증거인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투쟁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1년이 되어오는데도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반 《정부》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가 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괴뢰당국을 규탄하여 4일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그를 위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을 제출하였지만 《정부》가 그것을 외면하고 저들끼리 작성한 《시행령안》을 들고 나옴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진상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비난하였다.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

명요구에 당국이 돈으로 대담하고있다고 규탄하고 그들은 당국이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을 중지하고 《시행령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유가족들과 단체대표들은 가족들과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보는 앞에서 당국의 《시행령안》철회와 《세월》호의 인양,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고 도보행진을 시작하였다.

회생된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상복차림을 한 행진참가자들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고집하는 괴뢰당국에 저주를 퍼부으며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하였다.

다음날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행진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과 함께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실종자를 가족품에 돌려달라!》는 구호를 웨치고 집회를 가졌다.

본사기자 김정혁



만평 《가만히 있으라》

남조선에서 《세월》호의 침몰로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다속에 수장된것은 돈없고 권력이 없으면 바다에 빠져도 구원되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남조선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때의 비참상이 지금도 생생히 안겨오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안되어 유가족들의 피절은 곡성과 웨침이 강산을 울리고있으니 남조선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의 목숨같은것은 하찮은것으로 여기는 황

바다속에 수장된 인권

속에서 잠겨어놓고도 아직도 잠 못 든 어린 녀들을 우롱하고있으니 남조선의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그 누구의 있지

도 않는 《인권문제》를 요란스레 불어대는 남조선의 보수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이 인권이 소중한듯이 웨치지만 남조선의 인권은 지금 《세월》호와 함께 바다속에 수장되어있다.

남조선을 죽음으로 강요하는 암흑의 세상으로 만든 인권유린의 장본인들은 더이상 인권에 대해 떠들며 인간의 참된 권리를 우롱하는것을 하지 말라.

평양시 평천구역 리상순

조선옷은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조선사람의 체질, 맑고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정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생활상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변화 발전하여왔다.

조선옷은 성별에 따라 남자조선옷과 여자조선옷으로 나누어진다.

남자조선옷은 바지와 저고리, 두루마기로 구성되어있다. 남자옷을 아래 옷과 웃옷, 겉옷으로 구성하는 풍습은 고조선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존속되어왔다. 이것은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바지저고리

이러한 옷구성이 우리 나라의 기후와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고대조선주민들이 입은 남자옷은 저고리, 바지, 포(긴 겉옷)였다. 우리 나라 봉건시대 옷가운데서 가장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보기좋은 남자옷은 고구려시기의 남자옷이었다.

고구려시기 남자저고리 는 깃, 쇠, 동정, 고름이

달린 점에서는 여자저고리와 다름없었으나 길이가 길고 품이 넓은 점에서 구별되었다. 겨울에는 솜을 둔 솜저고리를 입었다. 옷을 저고리라고 부른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부터인것 같다.

고구려사람들이 입은 바지는 보통 활동에 편리한 좁은 바지였다. 그후 점차 넓어져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통이 넓은 바지로 되었다. 아래옷을 바지라고

한것도 조선봉건왕조시기부터이다. 바지를 백제에서는 《곤》, 신라에서는 《가반》, 고려에서는 《가배》라고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바지와 저고리를 일상옷으로도 입고 로동복, 명절옷으로도 입었다. 바지, 저고리 외에 로동복으로 우에 입는 등거리, 아베에 입는 잠뱅이, 겉옷비슷한 큰저고리가 있었다.

남자들이 입은 바지저고리에는 인민들의 생활적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게 옷을 만든것이라든가 계절적특성에 민감하게 홑옷과 겹옷, 솜옷으로 구분하여 옷을 만든것 등이 그러한 실례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한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귀감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강의날자: 1) 주제 104(2015)년 4월 17일
2) 주제 104(2015)년 4월 17일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 (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로켓무기 주화

주화는 《달리는 불》이라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은 14세기 말엽에 로켓무기인 주화를 개발하였다. 당시 이러한 로켓무기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이딸리아 등 3개 나라에서만 만들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로켓무기는 고려말기 화약무기의 발명가인 최무선에 의해 만들어진 후 그의 아들 최해산에 의해 더욱 완성되었다.

주화는 조선봉건왕조 초기인 1434년부터 실전에 사용되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1447년에

는 대, 중, 소 주화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1448년에는 《신기전》으로 이름이 바뀌여졌는데 당시 《산화신기전》이라는 공포용 로켓으로 만들어졌다.

신기전은 앞쪽이 가늘고 뒤쪽이 굵은 원뿔형 참대를 기본몸체로 하고있었는데 대의 맨앞쪽까이에는 반작용화약통이 있었고 대의 뒤쪽에는 십자형으로 된 날개가 붙어있었다. 신기전은 화약을 발사통에서 발화시키면 꼬리방향으로 뿜어져있는 분사구멍으로 연소가스가 나오면서 반작용으로 비행하

였다. 이때 긴 대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날개는 신기전이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였다.

1451년에 이동하면서 쓸수 있는 화차가 나오면서 화차에 설치한 신기전에서 발사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대신기전은 영국에서 1805년에 만든 로켓보다 더 큰 세계최대의 로켓이었다.

신기전은 15세기 중엽부터 임진조국전쟁시기까지 싸움터에서 적을 소멸하고 목표를 불사르는데와 신호탄으로 널리 쓰이면서 그 위력이 발휘되어 적들에게 공포의 무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원기회복에 좋은 조개

봄철에 입맛을 돋우고 원기를 회복하는데서 조개만 한것이 없다고 한다.

조개는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개 100g에는 수분 70~95%, 단백질 11~20%, 지방 0.5~3%, 당질 1.5~5.8%정도가 포함되어 있어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알려져있다.

조개는 단백질함유량이 높을뿐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질도 매우 좋다. 조개에는 사

람이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발린, 로이신, 이소로이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하여 아르기닌과 히스티딘도 많이 들어있다.

조개에는 글루타민산과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아미노산이 명태를 비롯한

어류에 비해볼 때 1.2배나 되며 간기능강화, 시력회복, 혈압안정, 뇌졸중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아미노산인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다.

조개로는 여러가지 료리를 해먹을수 있으나 봄철에는 된장을 듬뿍 넣은 조개된장국을 끓여 먹는것이 제일 좋다.

본사기자



사화 설 때 (4)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상궁은 얇전히 고개를 숙인채 합장배례하며 주지승의 노여움을 달래었다.

《진정하시오이다. 미련한 인생이 그만 잠시나마 엄숙한 불전임을 잊고... 하오면 설매를 만나 한두마디 물어보는것으로 일사를 마무리할가 하오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움을 바랄뿐이읍니다. 설매의 의사에 맡기겠소이다.》

이 소리에 어느덧 마음이 진정된 주지승은 뒤돌아 방문을 향해 설매를 불렀다.

《애야, 여기 나와서 묻는 말에 답변하여라.》

상궁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즉 설매는 안락한 생활이나, 아니나 하는 갈림길인 이 마당에서 제까짓게 설사 수처녀가 아니라도 수처녀라고 내맡판이라고 단정했다.

설매는 방문에서 조용히 나와 마루를 내려 고개를 숙인채 상궁앞에 다가섰다. 상궁은 웃음을 흘리

며 달려듯 말했다.

《설매야, 엄숙한 불전에서 솔직히 말해야 하느니라. 인생의 부귀영화가 결정되는 시각이란다.》

《물어보시면 솔직히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설매의 주저하지 않는 응대였다.

《그때 수처녀가 확실 할레지?》

이 소리에 설매는 기분없이 잠시 상궁을 마주보고는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중들과 상궁일행 모두는 설매를 지켜볼뿐 주위는 고요했다.

동안이 지나서 고개를 쳐든 설매는 다시한번 상궁을 마뜩잖게 마주보았다. 이어 정적을 깨치고 거침없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수처녀 아니와요!》 이 소리에 누구보다도 놀랜 상궁은 눈이 휘둥그래서 설매앞으로 움쉴 다가섰다. 《뭘 수처녀가 아니라지?》

바라던 마음이 컸을 상궁은 순순히 물러설 차비

가 아니었다.

《그럼 한가지 물겠다. 수처녀가 아니라면 너와 상합한 외간남자가 있을레니 누구지 어서 말해보거라. 야밤상경에 술숯을 스쳐 지나는 칼바람과 정분을 나누지는 않았을레지?》

이 물음을 예상한 설매였다. 그렇다고 물음에 대답할 묘안이 생각나서 내친 말은 더우기 아니였으며 말문이 막히리라는 각오도 벌써 하였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 물음에 납득할수 있는 충분한 대답이 없으면 간절한 소원은 실패를 면치 못한다.

그러나 내친 걸음을 중도에서 멈추고 순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동네방네의 알고있는 총각들을 생각나는대로 마구 지명할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용허할수 없는 죄악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편으로는 련민의 정을 느껴보지 못

한 마음없는 대방을 《내님》으로 지어내기란 아무리 긴급한 상황속에서도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였다.

하여 고개를 푹 숙인채 흥건히 내뺨 이마의 땀을 훔치며 더욱더 침묵을 지키었다. 기분없이 지켜보는 상궁의 독촉이 불같이

《왜 함구무언이나?

《몇이나 아닐수 없었다. 설매는 한숨을 푹으며 조용히 머리를 들고 구원의 자비를 강구하듯 애연한 눈길을 하늘가 멀리로 향하채 떠엄떠엄 나직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지님의 문하에서... 삼년공부를 마치고... 오늘 떠나간... 두 젊은이중에서 한... 젊은이와 그만...》 하며 말끝을 맺

지 못한채 얼굴을 푹 숙였다. 설매자신도 이 말이 어떻게 입밖으로 새어나왔는지는 몰랐으며 처녀의 부끄러움에 앞서 상대에 대한 죄스러운 자책감으로 갑자기 흐느껴울었다. 주지승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솔직히 대답하겠노라더니...》 어떤 대답으로 눈앞에 달린 불부터 끄단 말인가?! 아직은 이성관계의 깊

은 내막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나어린 처녀로서 실로 감당하기가 힘이 겨운 순간순간의 심리적

《뫼이라고?... 신성한 사찰에서 계를을 어기고 남녀가 간통하다니?! 아! 하다면 그가 불가에 독실한 젊은이고 전도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단정하

내가 청맹과니였지. 청맹과니였어!》 하며 울분속에 제 가슴을 팡팡 두드렸다.

이어 설매앞으로 다가서며 다급히 물었다.

《언제 어디서 상합했다는거냐? 네가 여기로 온것은 불과 이틀안팎인데 언제 벌써 정분이 맞아서?》

인젠 쏘뜨린 물이라고 생각한 설매는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어제 저녁 심회가 산란하여 달빛이 교묘한 후원숙을 거닐적에 그 젊은이를 마주보는 순간 그 정분을 나누고싶은 생각에 그만... 청렴한 그 젊은이를 꼬드겨 후

《저 새는 너와 연고된것이 분명하죽 가지가 가서 기르던가 놓아주게라.》 하고 돌아서 자욱을 읊겼다. 설매는 절에 더는 머물러있을 명분도 없게 되었으며 흐느끼는 울음속에 피폐새조롱을 품어 안고 집으로 향했다.

